

# “헌법·민주주의 정신... 혼란한 정국 마침표 기대”

# SOCIETY

2025년 4월 3일 목요일

## 민주노총 광주본부, 서구 광천사거리서 대시민 홍보 시민 피로감 호소...“헌법재판관 8대 0 파면 인용을”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길 바랍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이날 조합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인용 대시민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횡단보도 앞에서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법꾸라지 없는 대한민국 개헌으로 사회 대개혁’, ‘만장일치 파면’, ‘파면 아니면 파벌’ 등 다양한 문구의 현수막을 들며 탄핵안 인용 분위기를

길에 나서는 시민과 차량으로 가득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이날 조합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인용 대시민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횡단보도 앞에서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법꾸라지 없는 대한민국 개헌으로 사회 대개혁’, ‘만장일치 파면’, ‘파면 아니면 파벌’ 등 다양한 문구의 현수막을 들며 탄핵안 인용 분위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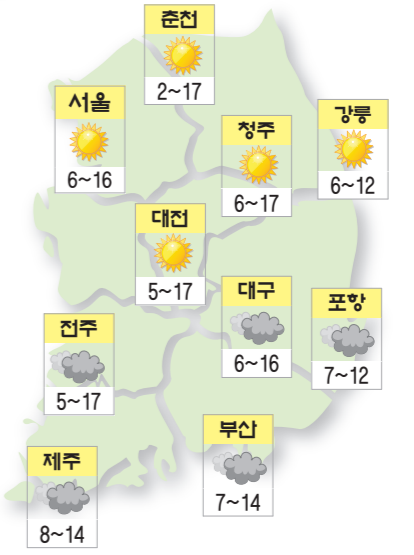
한껏 띄웠다. 시민들은 현수막을 바라보며 ‘고생한다’, ‘탄핵 인용으로 시국이 안정됐으면 좋겠다’란 응원 메시지를 건넸다. 일부 운전자는 현수막을 들고 있는 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다. 김해정씨(48·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일상이 멈춰진 성숙한 민주 시민의식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탄핵 정국으로 지친 국민에게 희망찬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탑승객이 삼삼오오 TV 앞에 모여 뉴스를 보거나 휴대전화를 보며 탄핵 관련

기사를 읽고 있었다. ‘공정하게 판단해달라...현재 결정에 승복’이란 TV 뉴스의 문구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시민도 있었다. 이들 역시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현재의 윤 대통령의 파면 선고를 희망했다. 박모씨(30)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조마조마하다”며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대한 현재의 선고를 국민과 같이 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거라 믿는다”면서 “헌법재판관

이 모두 8대 0 파면 인용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에 마침표를 찍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경숙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장은 “탄핵안 인용을 위해 4일 오전까지 대시민 홍보활동을 진행하겠다”며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내란세력이 발 디딜 수 없도록 권력구조와 정치체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북구 운암사거리(3일), 광산구 운수동 매일유업공장 앞 사거리(4일)에서 윤석열 탄핵 촉구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송대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오늘의 날씨

예보 06:17 맑음 09:20 맑음  
예보 18:55 맑음 ---:--



## 5·18민주광장서 탄핵심판 생중계 시청

### 광주비상행동, 탄핵 인용시 ‘축제 행사’

오는 4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생중계된다. 18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윤석열정권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진 4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시민들이 현재의 판결을 볼 수 있도록 생중계 화면을 상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광주비상행동 공동대표들이 모두 모여 시민들과 현재 선고를 지켜본 뒤 선고 결과를 따라 즉석에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광주비상행동은 이날 탄핵이 인용될 경우 민주주의를 성사시킨 시민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승리를 기념하는 축제형식의 행사를 진행한다. 각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발언을 통해 기쁨을 나눈다. 다만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열었던 광주시민총괄기회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선고 당일 5·18민주광장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탄핵안 결과에 따라 시민들의 집단행동이 유력함에 따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인력도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광주비상행동은 전남부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로 상경해 24시간 철야 투쟁을 펼치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전남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교수협의회를 비롯한 전남대 교수들이 2일 전남대 5·18기념관 앞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파면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역사적 판단 기로... 정의로운 판결 촉구”

### 광주 변호사들 ‘한줄 성명’... 전남대 교수 시국선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된 가운데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광주지역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일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을 촉구하는 ‘한 줄 성명’을 발표했다. 고영현·김성진(동명인인 참여)·류리·박인동·백동근·소병선·위서현·최목 등 광주지역 변호사 9인은 지난달 31일 광주 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줄 성명’ 참여를 제안했다. 이들은 현재가 탄핵 선고기일을 잡지 않는 기다림이 이어지자,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기획했다. 앞서 한강 작가 등 문인 414명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한 줄 성명을 발표한 것에 동참, 법률가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하는 취지였다. 이번 광주·전남 변호사 ‘한 줄 성명’에는 600여명의 회원 중 27명이 참여했다. 임정관 변호사는 “한 명의 법조인으로

서 부끄럽지 않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역사적 판단 기로에서 본인들의 소신 있는 판단과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성호 변호사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우형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은 민주주의의 편에 설지, 내란의 편에 설지 결정하라. 신을사오적이 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사사(44)로움 없이 일일(11)이 위헌 사안들을 충실히 검토했으니, 4월4일 11시에는 파면 결정으로 헌정질서를 지키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전남대학교 교수들도 헌법재판소에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의 존재 의미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로 증명하라”며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이번 시국선언은 전남대 민주교수협의회가 위원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한 선고를 현재가 미루면서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과 피로도가 극에 달

한 것을 두고 마련됐다. 이날 오후 12시 기준 총 300여명의 교수가 해당 시국선언에 서명했다. 교수들은 “전 국민은 윤 대통령의 위험·위법한 비상계엄을 봤다. 현명한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정신 나간 친위 쿠데타에 맞서 거리로 나섰다. 이는 1980년 5월처럼 2024년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구하는 위대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의 밤의 목격자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무너진 일상과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기대했다”면서 “유례없는 현재를 향한 국민적 신뢰는 법과 상식에 대한 믿음이 반영된 결과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군대를 동원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준엄한 심판을 촉구함과 동시에 현재가 위험·위법행위에 따른 국회의 탄핵소추 인용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저버린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에게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묻고,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는 헌법적 판결을 엄중히 선고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3월 광주·전남 날씨, 이상기후 ‘극심’

### 꽃샘추위에 기온 10도 이상 ‘뚝’...대설특보도

3월 광주·전남지역 날씨는 기온 변화가 급격하고 폭설까지 내리는 등 이상기후 현상이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기상청이 2일 발표한 ‘2025년 3월 기후특성’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3월 평균기온은 8.6도를 기록했다. 이는 평년(7.3도)과 지난해(8.3도)보다 높은 수준이다. 3월 초에는 대체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다가 16~19일 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졌고, 하순에는 고온이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꽃샘추위가 찾아온 16~19일은 북극에 있던 영하 40도 이하의 상층부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남하해 평균기온이 10도 내외로 크게 떨어졌다. 이로 인해 14일 14.8도였던 평균기온은 16일 4.8도, 18일 1.7도 등 10도 이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 기간 광주에는 15년 만에, 전남은 7년 만에 3월 대설특보가 내려졌다.

눈이 내린 날은 3.0일로 평년(1.3일)보다 많았고, 눈의 양 역시 1.6cm로 평년(0.4cm)에 비해 4배 더 내렸다. 21일부터는 중국 내륙의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가 사풍을 타고 유입돼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후 평균기온은 11.2도에 달했다. 광주 28.3도(26일), 목포 24.9도(26일), 순천 25.8도(25일)까지 오르며 일 최고기온은 극값을 경신했다. 다만 강수량은 44mm로 평년(79.7mm)보다 적은 55.2%에 그치면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됐다. 한동주 광주지방기상청장은 “3월 고온·건조한 날씨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서 대형 산불로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었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만큼 면밀히 감시해 기상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 조선대 의대생 복귀했지만 수업 참여는 ‘저조’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동맹휴학 중이던 의대생들이 대다수 복귀했지만 실제 수업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대 의대는 전체 학생의 5%만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실제 수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학생은 응답자 6571명 중 254명(3.97%)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은 의대협이 학교별 자체 조

사를 통해 전국 40개 의대 중 먼저 취합된 15개 의대의 결과로, 재학생 80~90%가 참여했다. 수강률이 가장 낮은 학교는 가천대로, 245명 중 1명(0.41%)만 수업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한림대(0.64%), 고려대생협회(의대협)에 따르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실제 수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학생은 응답자 6571명 중 254명(3.97%)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은 의대협이 학교별 자체 조

## 의대협 설문조사...응답자 542명 중 29명만 '5.35%' 의대 15곳 평균수강률 3.97%...정원 확대 가능성 ↑

방향이 ‘투쟁’으로 수업된 만큼 각 학교에서는 대의원의 안내를 잘 따라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전연 복귀하는 기사가 다수 나왔지만, 결국 어디에도 학생이 가득 찬 교실 사진은 보이지 않는다”며 “의미 있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수업 참여율이 저조한 만큼 내년 의대 모집인원과 관련한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를 단순 등록이 아닌 수업을 참여해 학점을 이수하는 것

까지 보기로 해서다.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이달 중순까지 수업 상황이 지켜본 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전원 복귀’의 기준을 실제 수업 참여율로 보고 있는 만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생 다수가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2000명 증원안 그대로 5058명이 된다. 또 일부 대학은 출석일수 부족으로 인한 유급이 누적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분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40개 의대에 ‘의대 학생 보호·신고 센터 안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학생들 간 학습권 침해 사례를 인지할 경우 엄정 조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